

# 모-자(母-子) 상호작용에 있어서 아동의 자기-조정에 관한 연구 \*

## Self-Regulation of the Child During Mother-Child Interaction

박 찬 화 \*\*  
Park, Chan Hwa

### ABSTRACT

The purpose of the present research was to study the self-regulation of the child during mother-child interaction. That is, this study focused on how mothers regulated children's problem solving efforts before children began to function as independent agents capable of self-regulation. The emphasis was on the "regulation-by-others" that preceded "self-regulation".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30 mother-child dyads. The dyads were divided into 3 groups of 10 dyads each on the basis of the child's age (2, 3, and 4 years of age). The instrument used for this study was the "truck puzzle" devised by Wertsch, McNamee, McLane and Budwig (1980). The problem solving task in this study required the dyad to make a puzzle in accordance with the model puzzle. The interaction of 30 mother-child dyads was observed and analyzed for verbal and non-verbal behavior used by the mother to regulate the child's behavior. One-way ANOVA, Scheffé post hoc comparison and Spearman's rank-difference correlation were used for the statistical analysis of the data.

The results revealed that there were significant age trends in regulation-by-others and self-regulation in joint cognitive activity; that is, there were developmental transitions from regulation-by-others to self-regulation in connection with crucial strategic behavior (looking at the model).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found in mothers' interventions after children's gaze at the model in joint cognitive activity; that is, the mean proportion of mothers' intervention for the 2-year-old group was the highest and that of the 4-year-old group was the lowest. There were no significant age-related differences in mothers' use of referential perspectives in joint cognitive activity. Children's regulation-by-others increased and children's self-regulation decreased in proportion to mothers' use of referential perspectives.

---

\* 1987년도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임.

\*\* 연세대학교 아동학과 연구조교.

## I . 서 론

자기-조정 (self-regulation)은 유아기에 나타나는 인지발달의 핵심적인 표시이다 (Flavell, 1977). 자기-조정은 Piaget 이론의 중심 개념중의 하나인 “반성적 추상화” (reflected abstraction)로 Brown(1977), Flavell 과 Wellman(1977) 등의 연구자들이 전략(strategies)과 상위인지(metacognition)란 주제하에 자기-조정의 과정을 분석하였다.

1970년대 후반기의 연구경향으로 아동이 과제상황에서 그의 활동을 어떻게 계획하고 조정하는가에 대해 집중적인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이러한 인지적 활동이 사회집단에 의해 어떻게 수행되는가에 대한 새로운 관심이 생겼다(Wertsch, 1985 b). 새로운 관심을 갖게된 이유로는 첫째, 어떤 한 개인에게만 초점을 맞춰 인지에 관해 연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인지적 활동이 어떻게 실행되는가에 대해 결정적인 설명을 제공하지 못한 다는 것이다 (Wertsch, 1980, 1985b). 두번째 이유는 협동적 인지활동 (joint cognitive activity)에서 심리적 기능이 개인의 인지적 활동을 발달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오랫동안 소련 심리학계의 주요 주제로 다루어져 왔는데, 대표적으로 “개인간 심리적” (interpsychological) 기능과 “개인내 심리적”(intrapyschological) 기능의 개체발생학적(ontogenetic) 관계에 관한 Vygotsky의 주장이 이러한 분야의 한 예이다.

Vygotsky는 성인과 아동간의 의사소통적 상호작용과 문제해결과정 중에 성인이 아동에게 타인-조정 (other-regulation)을 제공하며 이 상호작용에서 자기-조정의 근원을 추적해 볼 수 있다고 하였다.

본 연구는 Vygotsky의 사회적 상호작용 이론을 기초로 하여 어머니와 아동간의 문제해결적 상호작용에서 아동의 자기-조정에 선행하는 타인-조정, 어머니가 아동에게 제시하는 참조적 전망, 그리고 어머니의 참조적 전망과 아동의 조정행동간의 관계를 밝히는 데 초점을 두었다. 즉 어머니와 아동간의 상호작용에서 아동의 자기-조정의 근원을 조사하고, 나아가 자기-조정의 근원에 대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II . 이론적 배경

### 2. 1. 자기-조정 (self-regulation)에 대한 이론적 접근

Flavell(1977)은 자기-조정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즉 “자기-조정은 행동의 의도 또는 계획을 시도하고, 유혹적이거나 하나 금지된 행동, 상황에 대해 부적절한 행동을 의도적으로 억제하는 능력, 행동을 기다리고 유보하는 능력, 만족을 지연시키는 능력과 자기 관리 능력”이라는 것이다. 자기-조정은 자기 자신의 행동과 그 과정에 대한 개념을 추상화하고 자신의 인지구조 안으로 통합시킬 수 있는 능력인 Piaget의 “반

성적 추상화”(reflected abstraction)의 개념에 해당된다.

최근에 Kopp(1982)는 자기-조정의 선행 조건에 대한 고찰에서 통제의 단계를 신경생리학적 조절, 감각운동적 조절, 통제, 자기-통제, 자기-조정으로 나누었다. 자기-조정과 자기-통제는 둘 다 표상적 사고와 회상 기억의 사용 및 그것의 발달에 의존하기 때문에 개념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나, 자기-조정은 좀더 성숙된 자기-통제의 형태로서 내성(introspection), 의식(consciousness)이나 상위인지와 관련된 전략 및 반성(reflection)의 사용을 포함한다(Flavell, 1977; Pope & Singer, 1978).

자기-조정의 일반적 발달경향으로는 첫째, 자기-조정의 중재요인은 외부적 요인에서 내부적 요인으로 이동한다는 것과 둘째, 자기-조정 능력은 연령에 따라 증가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두가지 발달경향은 성숙과 경험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Kopp, 1982).

## 2. 2. 사회적 상호작용에 대한 Vygotsky의 이론

Vygotsky(1978)는 어떤 심리적 기능을 완전하게 설명하려면 그것의 근원과 발달에 관해 미리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모든 고등정신기능의 발달에서 사회적 상호작용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그에 의하면 어떤 고등정신기능은 실제로 두 번 나타나는데 처음에는 사람들간의 상호작용과 협동의 형태인 “개인간 심리적”(interpsychological) 수준에서 나타나고 이후에 “개인내

심리적”(intrapsychological) 수준에서 나타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개인의 인지적 성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동이 참여하는 사회적 상호작용의 특수한 형태를 살펴보는 것이 효과적이며, 문제해결 상황에서 전략적 행동은 대화자들간의 대화와 추론과정에 의해 가장 잘 이해될 수 있다(Wertsch, 1980, 1985a).

두 명 이상의 피험자들이 협력하여 인지적 과제를 해결하는 활동을 협동적 인지활동(joint cognitive activity)이라 하는데(Wertsch, 1980), 여기서 심리적 기능이 어떻게 수행되는가 하는 점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그 이유는 그런 기능이 개인의 인지적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인데, 이것은 개인의 심리적 기능을 이해하려면 기본적으로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그 근원을 파악해야 한다는 Vygotsky의 주장에 영향을 받은 것이다.

## 2. 3. 참조적 전망 (referential perspective)

협동적 인지활동에서 대화자들이 효과적으로 기능하기 위해 구체적인 사물과 사건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입장에서 참조적 전망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참조작용(reference)은 사물이나 사건에 명칭을 붙이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언어가 대상을 참조한다고 하고 이 때 참조되는 대상을 참조물(referent)이라 한다(조명한, 1981).

참조적 전망이란 화자(speaker)가 의도된 참조물을 확인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전망

이나 견해로서 참조적 행위의 필수적 부분이다 (Wertsch, 1980). 그런데 동일한 참조물은 다양한 방식으로 언급되거나 확인될 수 있으며, 화자는 의도된 참조물을 확인할 때 다른 형태의 참조적 표현을 선택함으로써 다른 양의 참조적 전망을 의사소통적 상황내에 제시할 수 있다.

참조적 전망에는 화자의 전망에 대한 정보량을 최소화하는 “지시적 표현”(deixis), “공통적 참조표현”(common referring expression)과 정보량을 최대로 하는 “문맥-정보적 참조표현”(context-informative referring expression)이 있다. 지시를 적절하게 사용하려면 의도된 참조물이 이미 물리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인지적으로 가정해야 하며, 지시적 표현(예: “이 것” 또는 “저 것”)이 의도된 참조물을 단순히 지시하기 위해 사용된다면 그런 표현은 참조적 전망에 대한 정보량을 최소화한다 (Silverstein, 1976). 공통적 참조표현은 참조물의 일반적 기능에 기초한 표현(예: “동근 것” 또는 “흰 것”)으로 화자가 특별한 참조적 전망을 소개하기 보다는 의도된 참조물을 확인하는데 더 관심있는 경우에 이 표현을 사용한다. 문맥-정보적 참조표현은 의사소통적 상황에 새로 막 들어선 사람에게 불분명한 전망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정보량이 최대로 많은 참조적 전망이다.

참조적 전망은 문제해결 상황에서 성인이 아동에게 다양한 수준에서 전략적 도움을 주는 것을 가능하게 하며 개인내 심리적 기능으로 부터 개인내 심리적 기능으로의 전이를 가능하게 하는 기제중의 하나이다 (Wertsch, 1985b).

## 2. 4. 선행연구

### 2. 4. 1. 협동적 인지활동에서

#### 자기-조정의 발달에 관한 연구

Kopp(1982)는 아동의 자기-조정이 지닌 이론적 문제는 양육자의 역할과 관련이 있다고 가정하였는데, 사회학습 이론과 행동주의 입장에서 행해진 연구에서도 자기-조정의 발달은 모델, 부모와 중요한 타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Bandura, 1971; Kanfer & Karoly, 1972; Meichenbaum & Goldman, 1971).

Wertsch(1979)는 2, 3, 4세 아동들 대상으로 과제 상황에서 어머니와의 상호작용을 연구하였다. 이 연구에서 그는 개인내 심리적 기능(타인-조정)에서 개인내 심리적 기능(자기-조정)으로의 전이의 네가지 수준을 밝혔다. 또한 Wertsch와 그의 동료들(1980)은 2, 3, 4세 아동들과 그들의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퍼즐완성 과제에서 아동의 전략적 문제해결활동을 연구한 결과, 연령이 낮을 수록 어머니의 타인-조정적 행동이 많았으며 어머니의 중재도 많았다.

Arns(1980)는 브라질의 6세 아동들을 그들의 어머니와 한 쌍을 이루게 하고, 다른 한편으로 교사와 한 쌍을 이루게 한 후, 농가의 안뜰을 묘사한 장난감 모형을 모델과 일치되게 만드는 과제를 제시하였다. 그 결과, 어머니들이 교사들보다 더 빈번히 과제 행동을 수행하고 직접적인 타인-조정의 형태로 아동의 행동을 조정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 연구결과에서 어머니의 행동과 교사의 행

동간의 차이를 가져온 결정적인 변인은 두 성인집단의 교육수준의 차이였다.

#### 2. 4. 2. 협동적 인지활동에서 참조적 전망에 관한 연구

Olson(1970)은 의사소통적 과제상황에서 성인 화자가 성인 청자에게 특별한 참조적 전망을 제시하는 동기를 연구하였다. 그 결과, 성인 화자는 참조물과 함께 놓여진 대안적 사물의 성질에 따라 특별한 참조적 전망을 선택하였다.

유사한 연구로 Rommetveit(1979)는 6세와 7세 아동을 대상으로 성인의 과제상황에 대한 정의가 Piaget의 논리-수학적 추론을 수행하는데 미치는 영향을 연구 하였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같은 계열화 과제에서 성인 화자가 참조적 표현을 변화시키 참조물을 언급했을 때 아동의 수행에 차이가 있었다.

자기-조정의 중재요인으로 성인이 아동의 전략적 활동을 조정할 때 사용한 참조적 전망에 관한 Wertsch(1980, 1985b)의 연구 결과에서, 성인의 참조적 전망은 아동의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즉 2세 아동의 어머니는 지시적 표현과 공통적 참조표현을 많이 사용하는데 비하여, 3세 아동의 어머니는 전략에 기초한 문맥-정보적 참조표현에 더 의존하였다.

#### 2. 5. 연구문제

이상에서 살펴 본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 밝히고자 하는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1) 모-자 협동인지활동에서 아동의 조정 행동은 아동의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2) 모-자 협동인지활동에서 아동의 과제 수행시 어머니가 제공한 중재는 아동의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3) 모-자 협동인지활동에서 어머니가 제시한 참조적 전망은 아동의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4) 모-자 협동인지활동에서 어머니의 참조적 전망과 아동의 조정행동간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 Ⅲ. 연구방법

#### 3.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2세, 3세, 4세 아동 남녀 각각 5명씩 30명과 그들의 어머니 30명으로 총 30쌍이었다. 이들은 어머니의 학력이 대학졸업 이상이면서 서울시와 과천시에 거주하는 중류계층의 가정으로부터 임의적으로 표집되었다.

#### 3. 2. 연구도구

본 연구의 도구로는 Wertsch와 그의 동료들(1980)이 제작한 트럭퍼즐을 사용하였다.

이 퍼즐은 두 영역으로 구성되는데, 한 영역은 비화물(非貨物, non-cargo)영역으로 창문, 헤드라이트, 트럭몸체, 바퀴 등의 8개

의 조각으로 구성되며 각각의 조각이 끼워질 장소가 일정하다. 또 다른 영역은 화물(貨物 cargo) 영역으로 색깔만 다르고 크기가 동일한 6개의 정사각형 짐조각으로 이루어지며, 각각의 정사각형 짐조각은 그 영역내 어느 곳에나 들어갈 수 있다. 따라서 비화물 영역의 조각을 정확히 끼우기 위해서 모델 퍼즐을 참조할 필요가 없으나 화물영역을 모델 퍼즐과 동일하게 완성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모델퍼즐을 참조해야만 한다.

### 3. 3. 연구절차

예비조사를 한 결과, 2세 1개월 이전의 아동과 5세 이상의 아동은 본 연구에서 제외되었으며, 퍼즐완성 과제에 소요되는 시간은 약 10분~20분인 것으로 밝혀졌다.

본 조사는 1986년 9월 12일에서 9월 23일 사이에 이루어졌는데, 연구자와 아동학을 전공하는 대학원생 한 명이 아동의 가정과 유아교육기관에서 실시하였다. 어머니와 아동에게 연습과제와 트릭퍼즐 과제를 제시한 후 과제를 해결하는 동안 연구자, 어머니와 아동이 한 말을 모두 녹음하였고 보조 연구자는 관찰범주에 해당되는 행동이 발생할 때 마다 모든 빈도를 기록하였다.

어머니와 아동의 상호작용은 퍼즐을 구성하는 한 개의 짐조각을 중심으로 일어나는데, 아동이 모델퍼즐을 참조함으로써 사용될 조각을 확인하고, 확인된 조각을 끼우는 일련의 단계를 거친다.

관찰된 행동의 목록은 아동의 응시, 어머니의 지적(pointing), 아동의 지적, 어머니

의 조각 다루기와 아동의 조각 다루기 등이다. 아동의 모델퍼즐에 대한 응시는 자기-조정적 응시와 타인-조정적 응시로 분류되었으며, 아동이 선택한 조각을 정확히 끼우는 과정에서 어머니가 중재한 사례수도 기록되었다. 어머니가 아동에게 제시하는 참조적 전망은 지시적 표현, 공통적 참조표현, 문맥-정보적 참조표현으로 분류되어 기록되었다.

어머니와 아동이 과제를 수행하는 동안 보인 행동 및 말을 관찰목록에 따라 기록한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자료를 분석하였다. 아동의 타인-조정적 모델응시와 자기-조정적 모델응시에 대해서는 화물영역에서 한 개의 짐조각을 중심으로 상호작용할 때, 아동의 모델응시 중에서 각각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하였다. 그리고 어머니의 중재에 대해서는 화물영역에서 나타난 중재 사례수를 아동의 모델에 대한 타인-조정적 응시 또는 자기-조정적 응시의 전체 빈도로 나누어 중재비율을 산출하였다. 어머니의 참조적 전망, 즉 지시적 표현, 공통적 참조표현, 문맥-정보적 참조표현에 대해서는 전체 참조적 표현 중에서 각각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하였다.

통계적 분석으로 연구문제 1, 연구문제 2, 연구문제 3에 대해서 일원변량분석을 하고 연구문제 1과 연구문제 2에 대해서는 사후검증으로 Scheffé 검증을 하였다. 연구문제 4에 대해서는 Spearman의 등위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 IV. 결과 및 해석

### 4. 1. 아동의 타인-조정적 행동과 자기-조정적 행동

본 연구에서 주된 관심은 아동의 모델응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응시를 조정하는 사람이 누구인가에 있다. 성인으로부터,

아동에게로 조정기술이 이동된다면, 즉 타인-조정에서 자기-조정으로 전환된다면 아동이 성장함에 따라 모델에 대한 타인-조정적 응시율은 감소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다.

피즐의 화물영역에서 타인-조정적 모델응시가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타인-조정적 모델응시 비율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여 일원변량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 표 1 > 연령에 따른 타인-조정적 모델응시 비율 비교

연령		통계치		F
		M	SD	
2	세	.94	.09	17.70**
3	세	.55	.33	
4	세	.26	.28	

\*\* p < .01

<표 1>에 의하면, 타인-조정적 모델응시 비율은 연령집단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 < .01). 그리고 타인-조정적 모델응시 비율이 어느 연령집단간의 차이에서 기인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Scheffé 검증을 한 결과, 타인-조정적 모델응시 비율은 2세와 3세, 그리고 2세와 4세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 < .05). 그러나 3세와

4세 집단간에 타인-조정적 모델응시 비율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모델응시에 대한 타인-조정에서 자기-조정으로의 발달적 이동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자기-조정적 모델응시 비율이 증가했다는 결과에서도 입증되었다. <표 2>는 자기-조정적 모델응시 비율의 평균과 표준편차, 그리고 F검증의 결과이다.

< 표 2 > 연령에 따른 자기-조정적 모델응시 비율 비교

연령		통계치		F
		M	SD	
2	세	.06	.09	17.28**
3	세	.44	.33	
4	세	.74	.28	

\*\* p < .01

〈표 2〉에 의하면 자기-조정적 모델응시 비율은 연령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특히 2세와 3세, 2세와 4세, 그리고 3세와 4세 집단간에 유의있는 차이가 있었다 (Scheffé 검증,  $p < .05$ ).

#### 4. 2. 어머니의 중재

아동이 모델에 대해서 타인-조정적 응시를 하거나 또는 자기-조정적 응시를 한 후, 화물영역에 짐조각을 정확히 끼우는 과정중에 어머니가 제공한 중재 비율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여 변량분석한 결과를 〈표 3〉에 제시하였다.

〈표 3〉 타인-조정적 모델응시 후 어머니의 중재 비율 비교

연령		통계치	M	SD	F
2	세		1.10	.44	
3	세		.74	.56	4.27*
4	세		.42	.55	

\*  $P < .05$

〈표 3〉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어머니의 중재비율은 연령집단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 $p < .05$ ). 특히 Scheffé 검증 결과, 2세와 4세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아동이 독립적으로 모델을 응시한 후, 화물영역에 짐조각을 정확히 끼우는 과정 중에 어머니가 제공한 중재는 연령에 따

라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것은 〈표 2〉와 〈표 4〉에 제시된 바와 같이, 2세 아동은 자기-조정적 모델응시를 거의 하지 않았고, 연령에 관계없이 자기-조정적 모델응시를 한 아동은 어머니의 중재에 크게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였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표 4〉 자기-조정적 모델응시 후 어머니의 중재 비율 비교

연령		통계치	M	SD	F
2	세		.13	.44	
3	세		.25	.32	.57
4	세		.29	.25	



이상의 결과들은 타인-조정적 모델응시를 한 아동들 가운데 낮은 연령의 아동은 어머니의 행동이나 말에 의해 처음 모델을 쳐다본 후 모델과 관련된 정보를 추출하지 못하였으나, 높은 연령의 아동은 모델의 전략적 중요성을 인식하였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자기-조정적 모델응시를 한 아동은 연령에 관계없이 이미 모델의 전략적 의미를 깨닫고 있다고 볼 수 있다.

4. 3. 어머니의 참조적 전망

퍼즐완성 과제에서 어머니와 아동이 상호 작용할 때 어머니가 제시한 참조적 전망이 아동의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전체 참조적 표현 중에 지시적 표현, 공통적 참조표현, 그리고 문맥-정보적 참조표현이 차지하는 비율을 구하여 각각을 아동의 연령에 따라 일원변량분석하였다. 그 결과, 각각의 참조적 표현은 아동의 연령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5>에는 아동의 연령별로 어머니의 참조적 전망의 비율을 제시하였다.

< 표 5 > 연령에 따른 어머니의 참조적 전망의 비율 비교

연령 통계치	2세		3세		4세		F
	M	SD	M	SD	M	SD	
참조적 전망							
지시적 표현	.60	.21	.56	.29	.51	.27	.32
공통적 참조표현	.27	.20	.30	.29	.33	.29	.12
문맥-정보적 참조표현	.13	.12	.14	.12	.16	.19	.14

<표 5>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아동의 연령에 관계없이 각 연령층의 아동의 어머니들은 지시적 표현을 가장 많이 사용하였고 공통적 참조표현, 문맥-정보적 참조표현 순으로 참조적 전망을 제시하였다.

4. 4. 어머니의 참조적 전망과 아동의 조정행동간의 관계

참조적 전망의 지시적 표현에는 언어적인

지시적 표현과 비언어적인 지적 (pointing) 이 포함된다. 본 연구에서는 우선 비언어적 지적 중에서 어머니가 모델을 지적하는 행동이 아동의 조정행동과 어떤 관계를 갖는가에 대해 분석하였다. 아동의 연령별로 어머니의 모델지적과 아동의 모델응시간의 상관계수를 산출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표 6>에 의하면, 어머니의 모델지적과 아동의 모델응시간의 상관은 3세와 4세 집단에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 $p < .01$ ),

< 표 6 > 연령에 따른 어머니의 모델지적과 아동의 모델 응시간의 상관계수

모델응시의 종류	연령	어머니의 모델지적		
		2세 (N=10)	3세 (N=10)	4세 (N=10)
타인-조정적 모델응시		.48	.83**	.71**
자기-조정적 모델응시		.08	-.78**	-.80**

\*\* p < .01

어머니의 모델지적과 아동의 타인-조정적 모델응시간에는 부적 상관을 보였다. 즉 3세와 4세 아동은 어머니가 모델을 많이 지적할 수록 모델을 응시하는 빈도가 많았고, 아동이 자기-조정적 모델응시를 많이 할 수록 어머니의 모델지적은 상대적으로 감소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에는 참조적 전망의 세 가지 하위표현

과 아동의 조정행동간의 관계를 살펴보겠다.

< 표 7 >에 제시된 바와 같이, 어머니의 참조적 전망과 아동의 타인-조정적 모델응시간에는 정적상관이 있었으며 아동의 자기-조정적 모델응시간에는 부적 상관이 있었다. 2세 집단의 타인-조정적 모델응시는 어머니의 문맥-정보적 참조표현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p < .05), 3세 집

< 표 7 > 어머니의 참조적 전망과 아동의 조정행동간의 상관계수

어머니의 참조적 전망	연령	2 세		3 세		4 세	
		타인-조정적 모델응시	자기-조정적 모델응시	타인-조정적 모델응시	자기-조정적 모델응시	타인-조정적 모델응시	자기-조정적 모델응시
지시적 표현		.50	-.00	.68*	-.32	.75**	-.67**
공통적 참조표현		.40	-.31	.41	-.50	.76**	-.77**
문맥-정보적 참조표현		.57*	-.65*	.58*	-.13	.78**	-.79**

\* p < .05

\*\* p < .01

단의 타인-조정적 모델응시는 어머니의 지시적 표현, 문맥-정보적 표현과 유의한 정

적 상관을 보였다 (p < .05). 4세 집단의 경우, 어머니의 세 가지 참조적 표현 모두와

아동의 타인-조정적 모델응시시간에는 유의한 부적 상관이 있었다 ( $p < .05$ ,  $p < .01$ ).

이 결과에 의하면, 2세 아동은 어머니가 문맥-정보적 참조표현을 많이 제시할 수록 모델을 더 많이 쳐다보았고, 3세 아동은 어머니의 공통적 참조표현보다 지시적 표현과 문맥-정보적 참조표현에 모델을 쳐다보는 반응을 더 많이 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4세 아동의 경우, 어머니의 모든 참조적 표현의 사용에 비례하여 아동의 타인-조정적 모델응시는 증가 하였으나 자기-조정적 모델응시는 상대적으로 감소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겠다.

## V. 논의 및 결론

### 5. 1. 논의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자기-조정제 선행하는 타인-조정을 어머니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살펴보고, 어머니가 사용한 참조적 전망과 아동의 조정행동간의 관계를 알아보았다.

본 연구의 결과, 어머니와 아동이 협력하여 과제를 수행하는 활동에서 아동의 타인-조정적 행동과 자기-조정적 행동은 아동의 연령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또한 아동이 타인-조정적 행동을 한 후, 과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하는 동안 어머니가 제공한 중재도 아동의 연령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아동의 자기-조정적 행동

을 한 다음 어머니가 중재한 사례는 아동의 연령에 따라 차이가 없었는데, 이러한 결과는 Wertsch와 그의 동료들(1980)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어머니가 제시한 참조적 전망은 아동의 연령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모든 연령에서 지시적 표현을 가장 많이 사용하였다. 이 결과는 어머니가 아동의 행동을 조정할 때 어머니가 선택한 참조적 전망에 관한 Wertsch(1980, 1985b)의 연구결과와 상이하게 나타났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성인의 참조적 전망과 아동의 조정행동간에 유의한 상관을 보였는데, 이 결과 또한 Wertsch(1980, 1985b)의 연구결과와 상이하다. 즉 Wertsch의 연구에 의하면, 아동은 연령이 낮을 수록 과제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여 성인의 문맥-정보적 참조표현에 전략적으로 반응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는 아동의 연령에 관계없이 어머니의 문맥-정보적 참조표현과 아동의 타인-조정적 행동간의 상관이 높았다.

이와같은 연구결과의 차이는 어머니의 지시방식이나 문화권에 따른 언어의 차이에서 기인된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 우선 어머니의 지시방식에서, 아동의 연령이 낮을 수록 어머니가 과제상황을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하였기 때문에 낮은 연령의 아동도 어머니의 문맥-정보적 참조표현에 적절하게 반응한 것으로 사려된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나타나는 문화권에 따른 언어의 차이는 성인과 아동의 인지활동을 위한 상호작용에서 문화적 가치와 사회계층이 아동의 인

지 발달에 영향을 끼친다는 연구들 (Laosa, 1980; Ramirez & Price-Williams, 1974 ; Witkin, 1979; 김 명순, 1983) 과 일치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화권의 차이에 따른 문제를 인지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과제와 난이도, 대화자들의 과제와의 경험, 대화자들의 연령과 같은 요인들과 관련시켜 계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겠다.

## 5. 2. 결 론

본 연구에서 제기된 문제에 따라 얻어진 결과 및 논의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모-자 협동인지활동에서 아동의 조정행동은 아동의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다. 즉 타인-조정적 행동에서 자기-조정적 행동으로 발달적 전이가 있다.

둘째, 모-자 협동인지활동에서 아동의 과제수행시 어머니가 제공한 중재는 아동의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다. 즉 어머니의 중재는 2세에서 가장 많고 4세에서 가장 적다.

셋째, 모-자 협동인지활동에서 어머니가 제시한 참조적 전망은 아동의 연령에 따라 차이가 없다.

넷째, 모-자 협동인지활동에서 어머니의 참조적 전망과 아동의 조정행동 간에는 상관이 있다. 즉 어머니가 참조적 전망을 많이 제시할 수록 아동의 타인-조정적 행동은 많이 나타나고 자기-조정적 행동은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난다.

## 참 고 문 헌

- 김명순 (1983). 어머니의 인지양식 및 지도 방식과 아동의 인지양식 간의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조명한 (1981). 심리언어학. 서울 : 정음사.
- Arns, F.J. (1980). Joint problem solving activity in adult-child dyads: A cross-cultural study. Dissertation, Northwestern University.
- Bandura, A. (1971). Psychological modeling. New York: Aldine-Atherton.
- Brown, A.L. (1977). Knowing when, where, and how to remember: A problem of meta-cognition. Technical Report Number 47. Center for the Study of Reading. Urbana-Champaign.
- Flavell, J.H. (1977). Cognitive development.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 Flavell, J.H., & Wellman, H.M. (1977). Metamemory. In R.V. Kail, Jr., & J.W. Hagen (Eds.), Perspectives on the development of memory and cognition.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Kanfer, F.H., & Karoly, P. (1972). Self-control: A behavioristic excursion into the lion's den. Behavior Therapy, 3, 398-416.

- Kopp, C.B. (1982). Antecedents of self-regulation: A developmental perspective. Developmental Psychology, 18, 199-214.
- Laosa, L.M. (1980). Maternal teaching strategies in Chicano and Anglo-American families: The influence of culture and education on maternal behavior. Child Development, 51, 759-765.
- Meichenbaum, D.H., & Goodman, J. (1971). Training impulsive children to talk to themselves: A means of developing self-control.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77, 115-126.
- Olson, D. (1970). Language and thought: Aspects of a cognitive theory of semantics. Psychological Review, 77, 257-273.
- Peirce, C.S. (1931-1935). Collected papers. Cambridge, Mass : Harvard University Press.
- Pope, K.S., & Singer, J.L. (1978). Regulation of the stream of consciousness: Toward a theory of ongoing thought. In G.E. Schwartz & D. Shapiro (Eds.), Consciousness and Self-regulation: Advances in research and theory. New York: Plenum Press.
- Ramirez, M., & Price-Williams, D.R. (1974). Cognitive styles of children of three ethnic groups in the United States.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5, 212-219.
- Rommetveit, R. (1979a). On negative rationalism in scholarly studies of verbal communication and dynamic residuals in the construction of human intersubjectivity. In R. Rommetveit & R.M. Blakar (Eds.), Studies of language, thought and verbal communication. London: Academic Press.
- Silverstein, M. (1976). Shifters, linguistics categories, and cultural description. In K. Basso & H. Selby (Eds.), Meaning in anthropology. Albuquerque: University of New Mexico Press.
- Vygotsky, L.S. (1978). In M. Cole, V. John-Steiner, S. Scribner, S. Scribner, & Souberman (Eds.), Mind in society: The development of higher psychological processes.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Wertsch, J.V. (1979). From social interaction to higher psychological processes: A clarification and application of Vygotsky's theory. Human Development, 22, 1-22.
- Wertsch, J.V. (1980). Semiotic mechanisms in joint cognitive activity. Paper presented at a joint US-USSR Conference on the Theory of Activity, Institute of Psychology, USSR Academy of Science, Moscow.
- Wertsch, J.V. (1985a). The semiotic mediation of mental life: L.S. Vygotsky and

- M.M. Bakhtin. In E. Mertz, & R.J. Parmentier (Eds.), Semiotic Mediation: Sociocultural and Psychological Perspectives. New York: Academic Press.
- Wertsch, J.V. (1985b). Adult-child interaction as a source of self-regulation in children. In S.R. Yussen (Ed.), The Growth of Reflection in Children. New York: Academic Press.
- Wertsch, J.V., McNames, G.D., McLane, J.B., & Budwing, N.A. (1980) The mother-child dyads as a problem-solving system. Child Development, 51, 1251-1221.
- Witkin, H.A. (1977). Socializations culture and ecology in the development of group and sex difference in cognitive styles. Human Development, 22, 358-372.